인문연구 제9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3, No. 1, pp.85~118
http://dx.doi.org/10.21211/JHUM.93.4

휴머니티를 횡단하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소고

-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를 중심으로

조춘희*

〈차 례〉

1. 서론
2. 복제인간과 포스트-휴먼
3. 휴머니티와 복제인간의 정체성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휴머니티를 횡단하는 포스트-휴먼의 문제에 대해 사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등장하는 복제인간을 통해서 포스트-휴먼 문제와 배타적 휴머니티의 요건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형상을 트랜스-휴머니티를 통해서 탐색함으로써 공생이 불가피할 미래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사유하고, 무엇보다 인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과학기술을

* 부산대학교 강사

통해 호모데우스를 지향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것이 실현되는 소설 속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복제인간과 포스트-휴먼의 문제를 사유하며, 3장에서는 휴머니티의 조건을 횡단하면서 구성된 소설 속 인물인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영혼과 감정 요소 등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포스트-휴머니티를 구성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제 문제를 포괄하며, 보다 성숙한 공존과 공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인문학적 궁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호모사피엔스가 구축한 견고한 인본주의의 세계를 허물고, 인문학과 과학기술, 그리고 동물학의 통섭적 사유를 통해 이종의 지형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일 고찰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 포스트-휴먼, 복제인간, 휴머니티, 횡단인문학

1. 서론

미래에 대한 예견은 기대와 불확실성을 조형한다. 코로나19 COVID-19를 경험하고 있는 2020년은 한때 우리가 꿈꾸던 미래적 시공이지만, 상상하던 이미지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탓에 일종의 위화감을 야기한다.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염려는 인간중심주의가 구축해온 근대 이후의 질서에 대한 의문이자, 도래할 변화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의 문제를 함의한다. 특히 전 지구적인 코로나 상황은, 국경횡단이 일상화된 오늘의 질서와 감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이동은 제한되고 개인의 자유는 공중보건과 첨예한 길항을 겪는 등 전례 없는 인류의 위기의식이 가중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이 기존 질서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성

찰의 인간 전횡이 야기한 오늘의 사건들에 대해 보다 냉엄한 진단이 요청되며, 횡단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반성과 재구축이 절실하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1]는 담담한 어조로 미래적 존재인 복제인간을 묘파한다. 즉 작가는 우리가 복제인간에게 부여해온 기존의 이미지와 수식을 삭제하고 인간적 요소에 방점을 두고 서사를 전개한다. 비인간적 요건으로 사유되어 오던 복제인간의 모습을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친숙하게 형상함으로써 인간과의 차별화를 희석시킨다. 이를 통해 이종의 구성원과의 공존과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독해할 수 있다. 가령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등의 결합으로 유기체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휴머노이드Humanoid가 개발/제작된다면 인류 공동체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확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는 더 이상 공상과학적 소재에 국한된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며, 혼재될 지구 구성원 및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인문적 고찰과 텍스트 『나를 보내지 마』에 대한 선행연구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포스트-휴먼/휴머니즘에 대한 고찰로, 김형주·이찬규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구성해 나갈 인공지능인문학Co-Humanism의 필요성에 대해 논구한다. 특히 인공지능인문학의 개념 정립을 위해 그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해 고찰되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사유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포스트휴먼을 둘러싼 현상과 담론들을 인문학적 성찰의 대상으로"(56쪽) 하는 새로운 인문학을 요청한다.[2] 그리고 김애령은 「사이

1)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 김남주 옮김, 민음사, 2009. 본문에서의 소설 인용은 해당 번역본을 중심으로 하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를 병기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 김형주·이찬규, 「포스트휴머니즘의 저편」, 『철학탐구』53, 중앙대 중앙철

보그 선언문」 등에서 추적할 수 있는 도나 해러웨이의 수사학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이 불가피할 포스트-휴먼 사회에 대비한 일종의 대항담론을 모색한 바 있다.[3)]

다음으로 문학 및 영화 텍스트를 포스트-휴먼 담론에 입각하여 고찰한 경우이다. 우선 천현순은 "전통적인 인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 몸을 유전적·기계적으로 변형시켜 키메라나 사이보그를 만들어내는 탈인간"(236쪽)의 문제를 독일 과학소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4)] 이양숙은 소수의 마니아층에 의해 향유되어 오던 과학소설의 영역이 영화화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과학담론과 문학적 상상력을 두루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때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을 근거로 과학담론을 탐색하는 일이 곧 오늘의 인간에 대해 사유하는 것임을 간취한다.[5)] 그리고 안진홍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피조물에 대한 빅터의 태도에서 비인간을 향한 인간적 혐오와 타자화를 지적한다.[6)] 김휘택은 "초인간, 포스트휴먼은 결국 인간과 기계의 물리적 결합은 물론, 생리적인 결합, 그리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까지를 모두 아우른다고"(44쪽)고 전제하면서, 드라마 『여우각시별』을 텍스트로 '기관 없는 신체'로서의 포스트-휴먼 신체의 문제에 대해 탐색한다.[7)] 또 함종호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포스트 휴먼의 출

학연구소, 2019, 51~80쪽. 선행연구 검토에서 직접 인용은 본문에 인용 페이지를 병기하기로 한다.

3)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21, 한국여성철학회, 2014, 68~94쪽.

4) 천현순, 「호모 데우스와 포스트휴먼 상상력」, 『브레히트와 현대연극』40, 한국브레히트학회, 2019, 235~258쪽.

5) 이양숙,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과학담론과 문학적 상상력」, 『도시인문학연구』11(1),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019, 83~112쪽 참조.

6) 안진홍, 「『프랑켄슈타인』: 인간과 비인간을 함께 포용하는 포스트휴먼」, 『영미어문학』134, 한국영미어문학회, 2019, 61~81쪽.

현은 인간 신체를 단순히 도구적인 기계로 대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 정신의 변화까지도 함축하는 것"(132쪽)으로 이해하고, 포스트-휴먼 담론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8]

끝으로 『나를 보내지 마』를 주요 텍스트로 다룬 선행연구로, 양종근은 『나를 보내지 마』와 『오레오레』에서의 복제 모티브를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제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자아정체성 문제"(193쪽)와 닿아 있음에 주목한다.[9] 그리고 박선주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등장하는 인조인간, 복제인간의 고아적 정체성에 대해 사유한다.[10] 조성란은 상실과 애도로서의 기억을 통해서 『나를 보내지 마』를 분석한다. 가령 상실의 기표로 구성되는 카세트테이프의 물리적 분실이 희망과 기대 등 가치의 상실이나 사랑 대상의 상실 등 존재론적 상실 역시 표상한다고 보았다. 이때 복제인간은 상실을 '기억하기'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애도한다고 역설한다.[11] 그리고 성정혜는 장기기증이라는 복제인간의 비극적인 운명과 이에 투영된 권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를 보내지 마』를 분석하고, 조에윤리학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규명한다.[12]

---

7) 김휘택, 「초인간, 포스트 휴먼의 등장과 재현」, 『문화와융합』41(2),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43~74쪽.

8) 함종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의사소통 교육 모색」, 『교양교육과 시민』2, 숙명여대 교양교육연구소, 2020, 131~153쪽.

9) 양종근, 「복제인간과 자아정체성」, 『인문연구』91,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191~222쪽.

10) 박선주, 「인조인간, "헐벗은 생명," 포스트/휴머니즘: 메리 쉘리의 『프랑켄슈타인』과 카즈오 이시구로의 『날 보내지 말아줘』에 나타난 고아와 인간」, 『역사와문화』24, 문화사학회, 2012, 129~152쪽.

11) 조성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나는 상실과 기억과 애도로서의 스토리텔링」, 『비교문화연구』58,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20, 129~154쪽.

12) 성정혜, 「생명정치를 넘어: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조에윤리학」, 『영미연구』48, 한국외대 영미연구소, 2020, 79~104쪽.

살펴본 것처럼 최근 포스트-휴먼 담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분위기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상용화와도 친연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강인공지능 시대의 휴머노이드와 인간복제가 실현가능한 기술적 단계에 진입한 것에 기초한다. 이들 연구는 인간의 수명연장을 위한 도구로 제작되는 복제인간의 신체와 정체성을 호모 사케르적 요건으로 착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의 층위에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길라잡이로 본 연구는 휴머니티Humanity를 횡단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형상을 트랜스-휴머니티를 통해서 탐색함으로써 공생이 불가피할 미래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사유하고, 무엇보다 인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전공학, 사이보그학 등 과학기술이 재창조할 다음 세대의 '인간'은 어떤 형상이며, 강고한 인본주의를 어떻게 횡단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때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공-산共産/sym-poiesis의 사유가 요긴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산의 가능성은 비인간적 주체를 호명할 때 비로소 상상할 수 있다. 특히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등장하는 복제인간을 통해서 포스트-휴먼 문제와 배타적 휴머니티의 요건들에 대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포스트-휴머니티를 구성하기 위해 긴박하게 요청된 전 지구적 차원의 제 문제를 포괄하며, 보다 성숙한 공생의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인문학적 궁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복제인간과 포스트-휴먼

1) 과학기술과 호모데우스

과학기술은 가장 유력한 인본주의의 결과이다. 근대 이후 적극

적으로 구성된 휴머니티의 조건들은 인간중심주의 세계를 형성하는 핵심 명제로 작동하였다. 놀랍게도 그간 이러한 인본주의에 대한 성찰은 미흡했으며, 그것으로부터 탈각된 인간 혹은 비인간에 대한 폭력과 배제가 정당화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유일하게 문명을 성취한 생물종으로서의 호모 사피엔스는 제국과 식민지를 횡단하는 수직적 세계를 구성했으며, 냉전체제를 지나 표면적이나마 평화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유발 하라리의 적확한 분석처럼 인류의 유한성을 가속하고 생명을 위협하던 질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유한성 너머의 신-되기Homo-Deus를 욕망하게 되었다.[13] 그러나 인간 우월주의에 대한 자연의 경종인 양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전염성 질병의 창궐은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전에서 추동된 인간적 오만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요구한다. 즉 인류가 정복했다고 판단했던 전염병의 도래는 백신 개발 등 의학기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그간의 인간 정체와 생활방식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트랜스휴머니즘 관점에서의 포스트-휴먼은 "인간강화를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들을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을 급진적으로 변형시켜 현재의 인간과는 현격히 다른 새로운 존재"를 조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서의 포스트-휴먼은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인간이 아닌 다른 비인간적 존재들, 즉 동물, 기계, 물질 등과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개념을 정립"[14]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가 과학기술이 인위적으로 견인할 미래인간에 대한 조망이라면, 후자는 전자를 포함하여 동물 등 비인간 주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인간과 동물은 자연의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동

13)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김명주 옮김, 김영사, 2017 참조.
14) 천현순, 앞의 논문, 237~238쪽.

등하나, 인간-공동체의 경우 스스로 구성한 문화적 토대에서 동물과의 차별화를 강화해 왔다. 덕분에 인간은 여타의 동물을 지배하고 자연을 독점해 왔으며, 그 결과 생태 파괴와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다. 인간과 동물의 공생만큼이나 미래사회를 구성할 비인간적 제 존재들과의 공존을 어떤 방식으로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 그녀는 그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우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헉 하고 숨을 멈추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내적 반응을 감지할 수 있었다. … 중략 … **마담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미를 겁내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겁내고 있었다.(57쪽, 강조: 인용자)

>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저 바깥세상에는 마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해를 끼치려 하지도 않지만 우리 같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치고 우리의 손이 자기들의 손에 스칠까 봐 겁에 질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59쪽)

소설『나를 보내지 마』에 등장하는 복제인간은 미디어가 재현해 온 비인간의 이미지와는 격차가 크다. 예컨대 사이보그나 복제인간 등 비인간의 형상은 유기체 인간과는 이질적인 존재로 조형·상상되어 왔다. 그러한 외형적 차이는 과학기술과 그것이 추동할 다른-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현 인류의 우려를 상쇄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소설 속 인물은 너무도 '인간적'이며, '인간'으로 교육되고 실험된다. 복제인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유전공학은 사이보그학이 구성할 탈성차post-gender를 횡단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존재의 자생적 자기복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중시킨

다. 마담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에서 비인간을 향한 인간적 혐오와 공포가 점철된 위기의식을 간취할 수 있다. 동물적 혹은 도구적으로만 소비되어야 할 그들이 유기체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감정과 내면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마담은 자신이 겪는 공포나 두려움의 실체를 보다 명료하게 자각하게 된다. 단순히 소모품으로 대용될 복제인간이 아닌 휴머니티를 구성하는 정체성의 요건을 갖춘/학습한 복제인간에 대한 경계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부와 혐오의 대상으로 정위해 있다는 경계의 메시지는 복제인간으로 하여금 은폐된 정체성에의 물음을 추동하게 한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나, 이 세상과는 다른 "바깥세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겪는 이물감과 소외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치고 우리의 손이 자기들의 손에 스칠까 봐 겁에 질린다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혼돈스럽고 기괴한"(59쪽) 양태로 조형되고 만다. "혐오는 책임(culpability)을 약화"[15]시킨다. 즉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그것에 내재된 윤리적 부담은 구성된 혐오 뒤에 은폐된다. 마담이 복제인간과의 거리 두기를 하는 연유는 그들 존재 자체가 호모-데우스를 욕망하는 인간의 부산물인 데서 기인한다. 일정한 목표(장기기증)만을 위해 제작된 복제인간이 교육을 통해 내면을 구성했다는 사실에서 미래적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이것이 야기하는 불안이 혐오와 공포의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인간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인간의 비인간성 때문이 아니라 비인간의 인간성을 확인할 때이다. 비인간의 인간성은 휴머니즘의 경계를 계속

15)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16쪽.

해서 위협"[16]하기 때문이다.

> 네 번째 기증이 끝나면 기술적으로는 목숨이 다했다 해도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남아서 더 많은 기증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본인이 안다. … 중략 … 그들이 자기 몸에서 손을 뗄 때까지 기증이 연달아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382쪽, 강조: 인용자)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조물주의 형상이거나, 불로장생하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을 '제작'하고자 하는 인류의 욕망은 이러한 두 양상에서 두루 포착된다. 올더스 헉슬러의 『멋진 신세계』(1932)에서 '양계장'의 공간은 미래사회가 디스토피아로 정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반증하며, 영화 〈인 타임〉(앤드류 니콜, 2011)은 인류의 불로장생이 행복의 징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의 삶도, 창조와 진보의 결과도, 조물주의 한낱 놀이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을 무수한 희망의 끝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물들이 겪는 절망과 분노, 허탈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네 번째 기증이 끝"난 후에도 "더 많은 기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통각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이런 맥락에서 복제인간의 용도와 존재 자체가 인류가 은폐하고 싶은 비윤리적인 인간 이기주의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다음 세대 비인간은 기술과 결합된 사이보그나 복제인간 등으로 형상할 수 있다. 유기체와 기계의 친연성은 호모마키나Homo Machina[17]라는 명명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고

16) 안진흥, 앞의 논문, 69쪽.

17) 한소원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근대 이후 적극적으로 구성된 인간과 기계의 친연성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판단을 대체"(xii쪽)하게 될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심화될수

차원적인 과학기술인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탐색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해 있다. 마찬가지로 생명공학은 인간의 생물학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전자편집기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현가능한 실재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크리스퍼-Cas9으로 집약되는 유전자 변형기술이 그러하다.[18] 제품처럼 맞춤제작이 가능한 'GMO사피엔스'[19]의 도래가 적어도 기술적 차원에서는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설에서 복제인간은 인공성이 거세되어 유기체와 구분되지 않는 이미지로 형상되기에 창조주로서의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가중된다.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1818)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창조한 괴물의 이미지는 과학기술에 의해 제작된 피조물에 대한 환상을 조형해 왔다. 마치 도깨비나 괴물처럼 기괴하고 혐오스러워야 한다는 외형에의 강박은 그들의 정체성 또한 위법적인 경계에 위치시킨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이 인간과 유사한 피조물을 제작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동안 적극적인 경계심을 표방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로 유기체의 '자연스러움'에 미치지 못하는 로봇의 우스꽝스러운 운동성이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AI와의 불통의 대화 등이 야기하는 미숙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록 인간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혼란 역시 가중될 것이다. 상상 너머의 과학기술이 실현될/되고 있는 내일의 세계는 휴머니티의 요건마저 위태롭게 할 공산이 크다. 미래의 기술적 토대 위에 좌정하게 될 인간을 "'호모마키나(Homo Machina)', '기계와 함께하는 인간'"(xv쪽)이라 명명하는 기저에는 미래 과학과 인류의 공존에 대한 인문학적 역할 또한 요청하는 것으로 독해할 수 있다. 한소원 외, 『호모마키나』,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참조.

18) 권복규 외,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메디치, 2015, 233쪽 참조.

19) 'GMO사피엔스'라는 명명은 유전자변형 인간의 '제작'이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함의한다. 즉 "'맞춤아기'나 '맞춤인간'은 의학적 이유든 특성 강화든 특정 목적을 위해 유전되는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사람"을 의미한다. 폴 뇌플러, 『GMO사피엔스의 시대』, 김보은 옮김, 반니, 2016, 15쪽.

생명공학과 사이보그공학 등의 융합적 조우는 법적제재 사항과 다수자의 윤리적 거부감만 해결된다면 머지않아 소설 속 캐시를 우리 앞에 내놓을 태세이다.

이와 같은 단편적 고찰로도 초인간의 도래에 대한 윤리적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인간 유형의 도래 가능성은 인간에 대한 재정의와 더불어 새로운 삶-질서를 요청한다. 그렇기에 유기체로 구성된 인간과 더불어 다양한 기계-인간 혹은 복제인간으로 혼재될 다음 세대의 '인간주의'는 어떻게 호명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 인류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때이다. 포스트-휴먼을 사유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종래의 인본주의를 횡단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때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과학기술로 '제작'된 비인간적 존재와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도래할 미래는 과학기술로 인한 가시적 변화 외에도 지구-구성원의 유형적 혼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2) 공-산 불가능한 장소성

도나 해러웨이가 사유하는 공-산共産/sym-poiesis이란 함께-생산/제작한다는 의미로, 모든 생명은 항상 다른 것과 공존하며, 함께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공-산의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0] 공존과 상생의 공-산적 질서는 상호성을 전제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연대 시스템을 탐색한다. 이때 비인간적 존재를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21]로 호명하고,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타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간 "서구의 인간

20)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2020, 5쪽 참조.
21) 위의 책, 31쪽.

학이 규정하는 인간은 만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는 예외적인 존재"[22]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인류세Anthropocene로 규정되기도 하는 생태 및 기후 위기를 야기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지구의 사막화는 인간이 자연, 곧 신(神)으로부터 이탈한 채 홀로 생존하고 발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그 교만한 사고에서 출발했다."[23]

『나를 보내지 마』의 장소성은 이러한 공-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인간적 오만을 증거한다. 소설은 크게 세 공간으로 구성되며, 인물의 장소이동은 도구로 소모되는 복제인간의 쓸모와 정체성을 표상한다. 1부의 경우 헤일셤에서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으며, 2부는 인간사회로 나가기 전 대기의 공간이자 간병사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의 코티지가 형상된다. 끝으로 3부는 기증자와 간병사라는 복제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회복센터로 그려진다. 특히 3부의 공간은 인간세계이면서도 유기체 인간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혼재의 조건에도 공존을 차단/금지당한 호모 사케르적 존재로서의 복제인간의 위상을 재독하게 되는 공간이다.

> 자동차를 몰고 시골을 돌아다니게 되면 요즘도 헤일셤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들과 마주친다. … 중략 … '아마 저기일 거야! 드디어 찾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헤일셤이 있었던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다음 순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며 그곳을 지나친다.(17쪽)

헤일셤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이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된 장소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

22) 위의 책, 7쪽.

23) 후쿠오카 마사노부, 『짚 한오라기의 혁명』, 최성현 옮김, 녹색평론사, 2011, 3쪽.

있다. 인간세계와 유리된 곳에 은폐된 탓에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한다. “헤일셤이 폐교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큰 가위를 가져와 줄을 꼬아 쥐고 있던 그 남자의 주먹 바로 위를 싹둑 잘라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면 그 풍선들 하나하나는 더 이상 같은 무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게 된다.”(293쪽)는 설명에서 헤일셤은 복제인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한 공간의 상실에서 이들의 위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해러웨이가 규정하는 “사이보그는 인공두뇌 유기체cybernetic organism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이며, 허구fiction의 피조물이자 사회 현실social reality의 피조물이다.”[24] 헤일셤의 존립을 결정하는 일은 이러한 사회 현실과 인식 변화에 따른다. 즉 인류의 생명 연장을 위한 누군가/무언가의 희생에 대한 윤리적 불편감을 어떻게 해소/은폐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 구조의 헤게모니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소설에서 헤일셤은 기대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많은 기증자들은 헤일셤 출신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보유한 일종의 특권을 동경하기까지 한다. 캐시가 “독방과 자동차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돌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14쪽)은 간병사로서 누리는 특권이자 다른 간병사들과의 차별을 구성한다. 적어도 헤일셤 출신이 아닌, 복제인간들은 헤일셤을 그러한 특권의 상징으로 인식할 만하다. 그래서 때때로 기증자들은 “마치 자기가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것처럼 헤일셤을”(17쪽) 추억했다. 헤일셤 출신이 아님에도 헤일셤에서의 추억을 조형하고 싶을 정도로 복제인간에게 헤일셤은 이상화된 장소로 형상된다.

> 적어도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에는 너희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우리는 신경을 썼다. 또한 너희가 우리를 떠난 후

24)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18쪽.

> 에도 최악의 것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배려했지. … 중략 …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적이고 교양 있는 환경에서 사육된다면 '학생'들 역시 일반인들처럼 지각 있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어.** 헤일셤 이전에 클론들은, 우리는 너희를 '학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지만, 그저 의학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단다.(358쪽, 강조: 인용자)

헤일셤이 동경의 공간으로 형상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보다 비극적인 공간으로 발현되며, 포로수용소와 비견되기도 한다. 그럴듯하게 꾸며 놓았을 뿐 그곳 역시 양계장과 다를 바 없으며, 외려 보다 폭력적인 공간이자 희망을 고문하는 장소이기도 한 까닭이다. 예외상태에 처한 호모 사케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해 놓은 실험실에 그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휴머니티의 조건을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를 실험하는 인간 이기주의의 산물이자, 애초 실험결과와 무관하게 폐기될 것이 확정된 존재라는 점에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최악의 것"으로부터도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그저 의학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은 불변한다. 결국 "인간적이고 교양 있는 환경에서 사육"된다는 것 역시 고문에 불과하다. 당초 집행 연기란 것도 "하나의 꿈, 하나의 환상"(354쪽)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헤일셤에서의 실험 또한 복제인간으로 하여금 부재의 희망을 품게 하는 잔혹한 폭력일 뿐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헤일셤에서는 복제인간에게 "문화인답게 행동"(18쪽)할 것을 강제한다.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은폐된 이들 존재에의 진실은 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교육을 받지만, "바깥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어렴풋한 인식, "기증"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103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차단돼 있다. 헤일셤이라는 장소의 모호성이 복제인간을 구성하는 무정체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대변되는 인간의 무책임을 오늘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주체들에게도 되묻게 된다. "결국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353쪽) 책임을 회피하는 창조주 인간의 이기적인 입장은 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반영한다.

> 코티지로 오면서 우리는 그곳이 나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헤일셤 같은 곳이리라 기대했다. 그리고 한동안 그곳을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코티지 이후의 삶에 대해서나, 누가 그곳을 운영하는지 혹은 그곳이 더 넓은 바깥세상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165쪽)

> 간병사가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혼자 차를 몰고 이 센터에서 저 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먼 길을 다녀야 하고, 토막잠을 자야 하고, 누구에게도 걱정거리를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와도 함께 소리 내어 웃을 수 없다.(286쪽)

다음으로 코티지는 간병사가 되어 인간세계에 합류하기 위한 예행이자 대기의 공간으로 형상된다. 이곳에서 복제인간들은 자유를 구가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방식이나 소통방식 등을 흉내낸다. "서로를 향한 몸짓, 소파에 함께 앉은 방식이나 심지어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휭 하고 방을 나가 버리는"(171쪽)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듯이, 복제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인간사회의 행동양식을 모방하는 것은 종국에는 인간사회 구성원들이 이물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복제인간으로서 인간세계에 편입되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좌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인지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간병사가 되기 위한 수속이나 운전 교육 등등의 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6개월여 동안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200쪽) 당초 "나이 많은 학생들

을 위한 헤일셤 같은 곳"을 기대했으나, "잘못 주어진 과제처럼"(274쪽) 혹은 "모든 기능이 정지"(165쪽)된 옛 농장의 낡은 농가인 코티지의 외형처럼 이전의 특권으로부터 박탈되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복제인간의 자기은폐와 인간-흉내내기는 결코 인간과는 동일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차이를 거세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존과 공-산이 불가능한 좌표에 있다는 증좌이다. "우리라는 정체성"[25]으로 인류만의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신화를 창조해 왔다. "정체성은 모순적이고 부분적이며 전략적"[26]이기에 동질성을 앞세워 차별과 배제를 용인해 왔다. 유기체 인간과 복제인간과의 차이를 거세해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복제인간의 고유성(그것이 존재한다면,)은 상실되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구성되고 만다.

간병사라는 고독한 역할과 함께 결국은 기증자가 되기 위해 대기중인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복제인간의 기능과 쓸모를 명료하게 확인하게 된다. 성정혜의 지적처럼, "복제인간은 간병인이 되어 자신과 같은 복제 인간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복제인간이 최대한의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체제 안에 갇혀 있다."[27] 이런 맥락에서 캐시는 인간이 조형한 제도와 폭력, 파놉티콘에 가장 순종적인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기억하기'라는 능동적 활동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복제인간 문제를 사유하도록 견인하지만, 적극적인 저항성은 결핍되어 있다. 캐시는 스스로 기증자-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인간체제에 저항하기를 시도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선택조차도 체제에 기여하는 행위에 그친다. 애초부터 복제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인간이 구성해 놓은 체제를 뚫고 나올 수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

25) 위의 책, 31쪽.
26) 위의 책, 30쪽.
27) 성정혜, 앞의 논문, 95쪽.

이때 복제인간의 간병사로서의 노동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란 결국 사회적 주체로서의 정체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스스로의 역할과 필요를 입증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노동 행위를 통해서 관계와 소유 등 욕망을 생성하게 된다. 반면 노동부재나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탈각된 소외의 증거이다. 즉 노동은 "생산하는 인간화의 활동"이자, "주체가 지식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예속과 소외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론적 범주"[28]이나, 간병사로서의 복제인간의 노동 행위가 그들 존재에 대한 인정이나 이해를 견인하는 데 호의적이거나 유의미한 좌표에 위치에 있지는 않다. 외려 복제인간의 특수성을 강화하는 요소이자 배제와 그것에 내재한 혐오의 표상으로도 독해된다. 복제인간에 의한 장기기증 덕분에 연장된 삶을 향유하게 된 유기체 인간으로서는 '그들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강렬한 죄책감이 발현되기도 할 터이다. 때문에 그들의 실존 및 실재는 끊임없이 은폐되어야 한다. 그러니 회복과 죽음을 포함하는 기증의 전 과정은 인간이 아닌 복제인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로스트 코너, 에밀리 선생님은 노퍼크를 그렇게 칭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노퍼크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헤일셤 건물 4층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로스트 코너'가 있었다. 뭔가 잃어버렸거나 주웠다면 그곳으로 가면 되었다.(98쪽)

끝으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으로서의 헤일셤은 무수한 환상을 조장한다. "헤일셤 너머의 장소는 어디가 되었든 간에 환상 속의 세계"(99쪽)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헤일셤은 바깥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곳이다. 이때 노퍼크는 일종의 위안의 공간으로 상정된다. 주디 브릿지워터의 「네버 렛 미 고」가 실린 『송스 애프터 다크』라는 카세

28)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37쪽.

트테이프가 갖는 상징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분실한 물건을 찾는다는 것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상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징후로 작용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채로 구성된 복제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예견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되찾은 카세트테이프가 복제품의 하나이듯이, 복제인간 역시 대용품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이 명징해질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규정하는 '휴먼'조차도 인종·민족·국가의 병존과 대립으로 구성된다. 하물며 휴먼 너머 비인간과의 공-산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협력이 가능한 인류를 향한 긍정적 기대가 가능하다면 좋겠으나, 우리는 전 지구적 전염병을 경험하면서도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부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포스트-휴먼, 곧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재편할 지구-공동체의 혼종적 구성원에 대해서 오랜 인문적 고찰과 소통이 절실한 까닭을 반증한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겠지만, 어떻게 공-산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포스트-휴먼에 대한 학문적 탐색은 종래의 인간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정체성의 요소를 해체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근대적 질서에서 구성된 휴먼과 휴머니티를 횡단함으로써 비로소 다양한 구성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29]으로서의 복제인간과 같은 테크노사이언스의 존재들이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 등 비인간적 제 존재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 및 이종을 인정하는 혼재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인문학적 고찰이 그러하다.

29) 최유미, 앞의 책, 105쪽.

3. 휴머니티와 복제인간의 정체성

1) 창조성과 영혼

애초 복제인간의 정체성은 구성되지 않아야 하며, 무정체의 정체성을 토대로 구현될 때 인간의 고유성 또한 유지될 수 있다. 비인간은 로봇과 같은 무생명성을 띠어야 하며 그것이 일종의 생명성을 띤다고 해도 '인간과 다른' 동물성에 국한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휴머니티와 그것이 견고하게 구축한 세계 또한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 속 인물들은 이러한 구획과 통념을 해체하는 (인간적)개성을 보유하고 있다. 서사를 추적할수록 도륙당하는 동물의 마지막 눈빛을 목도한 것마냥 무거운 죄책감을 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가령 SF 특유의 스토리텔링을 기대한 독자의 경우 기숙학교에서 전개되는 10대 소녀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서사로 인해 당혹스러움과 일종의 배신감을 경험하게 된다. 분명 인간과 극명하게 달라야 하지만, 등장인물들의 개성은 무수한 우리와 닮았으며, 이 때문에 독자의 혼란과 불편감이 가중된다.

상상력과 창조성은 휴머니티를 구성하는 인간만의 독자적인 산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 고유의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의 대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창의적인 영역, 예술 분야까지도 대체 가능하다는 판단과 사례들"[30]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짐작건대 로봇-시인의 도래는 실현가능한 미래로 예견할 수 있으며, 인간 정체성의 일단을 구성하는 예술활동의 고유성 또한 해체될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시장경제에서의 실용가치와 인간

30) 이경수, 「인공지능 시대 시의 윤리와 시적 정의」, 『국제어문』82, 국제어문학회, 2019, 434쪽.

영역을 보유하고자 하는 배타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의 진보와 가능성을 검증하는 층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될지도 모른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과학기술로 조형·제작된 로봇과 인간을 변별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를 창조 활동에서 찾는다. 그러니 복제인간이 알고리즘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 능동성과 창의적 발현을 통해서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은 비인간의 정신세계, 즉 내면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탐색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온 … 중략 …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재능을 꽃피우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토미 역시 그런 이들 중 하나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 중략 … 진심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창의적으로 될 수 없는 토미의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었다.(46쪽)

> **문제는 너희가 들었으되 듣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는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듣긴 했지만, 아무도 진짜 분명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 중략 …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지.**(118~119쪽, 강조: 인용자)

연민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루시 선생의 폭로에도 우리(복제인간)는 온전히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정도로 헤일셤의 교육은 철저했으며, 그 교육으로 '우리'는 인간과의 차이를 온전히 구성하지 못한다. 루시 선생의 조언 덕분에 토미의 원인 모를 분노와 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실상 토미의 분노가 자신의 창조성 결여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토미가 겪는 극도의 분노는 평범한 10대 인간의 심리적 충돌과 다르지 않은 탓이다. "내가 그렇게 창조적으로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모든 게 아주 잘될 거라고 말씀하셨어."(41쪽)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은 떨고 계셨어."

(47쪽) 루시 선생의 분노는 복제인간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인간 이기주의에서 촉발되었다. 복제인간에게 "창조성을 발휘하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삶에의 의지와 미래의 가능성을 키우게 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실험은 혜택이나 기회라는 미명 아래 무책임하게 자행될 뿐이다. 그는 기증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에 관한 일이나, "언젠가 우리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충분하지 않"(49쪽)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무엇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실험적 교육의 폭력성 역시 목도한다.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제작된 복제인간에게 결과에 대한 대응력 없이 창조적 활동을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만의 산물인 것이다. 캐시의 반문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든 기증을 하고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어째서 그런 수업 같은 걸 받아야 했"(356쪽)는지 설명할 필요조차 제기되지 않는다.

> 도대체 화랑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어째서 '마담'은 가장 잘된 작품을 모조리 거둬 가는지. … 중략 … 그림이나 시 같은 건 '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했어. '영혼을 드러낸다'고 말이야. … 중략 … 헤일셤 출신자들을 위해 특별한 계약 같은 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자.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여기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럴 경우 말이야, 캐시.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244~245쪽)

헤일셤 출신이라는 특권은, 헤일셤 출신이 아닌 복제인간의 동경으로부터 조형된다. 그것은 소문이기도 하고 실체가 없는 허상일 수도 있으나, 양계장 출신자들로서는 헤일셤 출신만의 또 다른 특권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자리한다. 게다가 "그림이나 시 같은" 예술작품은 "내면"과 "영혼"을 드러내는 활동이기에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이러한 기

대의 산물이다. 예컨대 학창시절 창조적 활동에는 재능이 없었던 토미가 "상상 속 동물"(250쪽) 그리기에 심취했던 것도 이러한 소문이 생성한 기대심리의 반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헤일셤은 인간의 교양 및 예술교육을 복제인간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수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만을 위한 다른 기회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루시 선생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들 존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차단되었기에 소문은 보다 강력해진다.

헤일셤에서 열렸던 교환회 또한 화랑의 존재와 더불어 복제인간에게는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는 요소이자,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유욕"(62쪽)이 생기게 되고,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때 개성이란 휴먼적인 요건이다. "훌륭한 물건을 '창조'하"(31쪽)는 것이나 "시를 잘 쓰"(33쪽)는 것은 인간의 창조활동을 단적으로 표상한다. 예술능력은 인간만이 구성한 문화 산물이며 여타의 동물성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고함과 인간예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런데 헤일셤에서 복제인간을 상대로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고 이들의 창조성을 계발하도록 실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희망과 기대를 조형하는 데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헤일셤에서의 실험은 복제인간을 일종의 비인간 주체에 국한하지 않고, 이들에게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별성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면을 구성하도록 조력/실험한 것에 대한 무책임에 있다. 복제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헤일셤에서의 실험은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양 포장되었을 뿐, 인간 이기주의를 상쇄하기 위한 일시적 장치이자 실험적 증명에 지나지 않는다. 복제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중성은 우월주의와 더불어 "두려움"과 "극도의 혐오감"(368쪽)을 수반한다. 이는 과학기술을 대하는 인간의 환희와 공포를 대변하기도 한다.

>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부랑자나 인간쓰레기, 창녀,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정신병자나 죄수들로부터 복제된 거예요. 그게 우리 근원이에요. … 중략 … 누구든 자신의 근원자를 찾고 싶다면, 진짜 그 일을 해내고 싶다면 빈민가로, 쓰레기통으로, 화장실로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곳들이 우리가 시작된 곳이니까요.(232~233쪽)

복제인간은 인간에서 "복제된 개체인 만큼 바깥세상에는 우리의 근원자가 살고 있"(195쪽)다고 믿는다. 근원자 찾기는 무정체성의 복제인간에게는 중대한 문제로 형상된다. 복제인간의 정체성의 근거이자 지표가 근원자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루스나 캐시 등은 근원자를 찾기 위해 노퍼크를 여행하게 된다. "'분실물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퍼크에 가고 싶었다는" 루스는 "'근원자'를 찾아내는 일"(205쪽)에 무관심한 듯이 행동하지만, 실상 자신의 근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실망한다. 근원자는 만들어진 제품이자 대체재에 불과한 '그들/그것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해줄 수도 있는 유일한 단서이다. 그러나 "복제인간은 상실로 규정되는 존재이다. 원본에서 개체로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근원을 상실하였으며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지니지 못한다."[31]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괴물을 조형한 재료가 '버려진 것'들이었듯이 '인간'사회로부터 추방당한 호모 사케르가 자신들의 근원이라 짐작하는 연유 역시 복제인간의 훼손된, 당초 구성되지 못한 부정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이런 이유에서 복제인간을 "살아있는 죽음(living death)의 가장 적확한 구현"[32]으로 정의할 수 있다.

캐시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서사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들의 정체를 혼란스럽게 하며, 휴머니티의 조건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데 기여한다. 공감은 타자와의 관계 및 공동체를 구성하고 연대를

31) 조성란, 앞의 논문, 130쪽.
32) 박선주, 앞의 논문, 139쪽.

기획하는 데 중대한 요건이며 무엇보다 휴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한 요소이다. 그런데 소설 속 복제인간들은 이러한 유기체 인간만의 특수성으로 호명되어온 특질을 횡단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포스트-휴먼을 구상하도록 종용한다. 기계적·인공적 이물감이 있는 사이보그 정체성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요소로 조형된 복제인간의 형상은 도래할 그들에 대한 보다 중층적이고 복수화된 이해를 요청한다. 과학기술이 선도할 포스트-휴먼의 형상이 어느 정도까지의 휴머노이드를 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아 인간만의 독점적 상상력이란 해체되고 말 것이다.

2) 감정과 욕망

가즈오 이시구로는 창조활동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복제인간을 통해서 생명연장이 실현될 미래세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청한다. 휴머니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복제인간은 그동안 인류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간과하고자 했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한다. 인간이라는 고유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인간의 특권의식, 곧 인간예외주의에 대한 당위성을 횡단하면서 윤리적 부담감과 심리적 공포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유기체 인간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복제인간의 '감정' 요소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정심,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은 우리 모두가 지닌 인간성을 상기시켜 주는 본질적이고 소중한 신호"[33]이다. 작가가 굳이 감정을 보유한 존재로서의 복제인간을 형상한 까닭 역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일갈로 사유할 수 있다.

33)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25쪽.

소설에서 복제인간의 삶을 비극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은, 몇 번의 기증으로 '완결'되는 그들의 삶과 죽음뿐 아니라 생생하게 형상된 세밀한 감정들에 있다. 사랑, 질투, 분노 등 복제인간의 감정의 징후들은 인간의 죄책감을 증폭한다. 감정이야말로 인간의 개별성의 가장 직접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를 '짐승을 넘어서는' 존재로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들에 의거하여 우리의 인간됨을 정의내"[34]린다는 점에서 감정을 인간만의 특질로 독해하는 것 역시 인간예외주의에 입각한 오만이라 할 것이다.

> 너희 헤일셤 출신들이야말로 정말 행운아들이야. … 중략 … **떠도는 소문인데,** 몇몇 헤일셤 출신자들이 **특별한 상황하에서 집행 연기를 받았다는 거야.** 헤일셤 출신이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헤일셤 출신자는 기증 집행을 3년, 나아가 4년 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대. … 중략 … 소문에 따르면, 어떤 커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헤일셤 운영자들이 그 진위를 가려낸다는 거야. 그 결과 사실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몇 년간 함께 지낸 다음 기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213~214쪽, 강조: 인용자)

어떤 의미에서 분출하는 감정은 전술한 창조활동의 기원이기도 하다. 주요인물인 캐시, 루스 그리고 토미는 10대를 함께 보낸 친구 사이의 감정적 층위를 두루 보여준다. 캐시가 루스에 대해, "나와 루스의 관계, 당시 그 애가 내게 주입한 일종의 충성심은 건강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85쪽)고 회고하듯이, 이들이 겪는 감정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서 구성된다. 더불어 죽음의 문제라든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도 휴머니티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사랑의 경우 가장 특수한 요소로 분류된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면, 집행유예라는 특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소문에서 감정에

34) 마사 누스바움, 『정치적 감정』, 박용준 옮김, 글항아리, 2019, 224쪽.

대한 강박을 겪는 복제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은 집행 연기에 대한 일종의 기대를 생성한다. 물론 그들의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 헤일셤에서의 교양·예술교육을 통해서 주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성차적 존재로 형상되어온 사이보그와 달리, 유전공학적 차원에서 상상될 수밖에 없는 복제인간은 인간과 유전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다른 유형의 비인간과도 차별적 층위에 놓인다. 사랑은 이기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타적인 행위를 수반한다. 사랑한다는 감정과 행위에 내재한 관계맺기의 징후나 사랑을 위한 희생은 숭고한 인간미로 형상되기도 한다.

> 루스,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넌 정말 반드시 성교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적이 없니?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을 정도로 말이야?(181쪽)

> 바깥세상에 나가서 성교를 할 때, 특히 '학생'이 아닌 일반인과 성교를 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바깥세상에서는 성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중략 … 바깥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과는 달리 성교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중략 …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없긴 하지만, 일단 바깥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일반인들처럼 행동해야 했다.(122쪽)

캐시는 "누구하고든 성교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141쪽)이 들 정도로 강렬한 성욕에 괴로워하며, 포르노 잡지에서 자신의 근원자를 찾는다. "만약 그런 잡지에서 내 근원자임직한 얼굴을 발견한다면 적어도 그런 현상"(254쪽)을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다. "성정체성은 인간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특히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존재 근거와 내적 욕망에 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이

를 통해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중요한 정서적 자산이 된다."[35] 이런 측면에서 소설 속 복제인간은 어른-되기가 차단된 존재들로 사유할 수 있다. 그들의 성욕은 온전히 성찰될 수 없는 형태로만 구상되기 때문이다. "바깥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일반인처럼 행동해야" 하기에 "성교를 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간의 성교는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라는 "의미"가 생성되기에 복제인간의 성교와 구분된다. 에밀리 선생의 강의는 성교에 관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바깥세상 사람과 "학생"들과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들었으되 듣지 못한' 상태"(122쪽)를 야기하는 기묘한 화법을 통해서 진실은 의도적으로 은폐된다. "기증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것"(123쪽)이 시사하듯이 복제인간에게는 정보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형태로만 불완전하게 제공되었다.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를 탈성차적 존재인 "포스트젠더postgender 세계의 피조물"[36]로 구상하는 것과 달리, 캐시 등 복제인간들이 겪는 성욕은 지극히 강렬한 동물성의 증거로 작용한다. 특히 캐시에게 성욕의 문제는 불임인 생식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근원자를 향한 관심으로 확장되며, 유기체로서의 존재성을 환기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성교와 연관된 임신 가능성이 거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제인간에게는 그들만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미래적 잠재력이 소거되었다는 것 또한 착목할 수 있다.

> 그 노래의 어떤 점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졌던 것일까? 가사의 의미를 새기는 대신 나는 "베이비, 베이비, 네버 렛 미 고……."라는 후렴구가 흘러나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러면 나는 평생에 걸쳐 간절하게 아기를 바랐으나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어떤 여자

35) 양종근, 앞의 논문, 200쪽.
36)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20쪽.

> 를 떠올렸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여자는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면서 "베이비, 네버 렛 미 고……."하고 노래하는 것이다.(105쪽)

> 그날 춤을 추는 너에게서 내가 본 건 좀 다른 거였다. 나는 **빠르게 다가오는 신세계**를 보았지. 과거의 질병에 대한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그래, 더 많은 치료법을 말이야. 맞아. 거칠고 잔인한 세상이지. 나는 어린 소녀가 두 눈을 꼭 감은 채 과거의 세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과거의 세계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걸 보았어.** 그걸 가슴에 안고 그 애는 결코 자기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지.(372쪽, 강조: 인용자)

욕망은 인류가 문명을 구축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항상 새로운 가치를 지향했고, 덕분에 인간-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보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욕구를 갖고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잘못"(109쪽)으로 여겨져, 그 사실을 은폐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에서 복제인간의 정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보여준다. 또한 욕망이 문명을 구성하는 데 기여했듯이 복제인간이 욕망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변이할 수 있다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네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렇게 춤추는 걸 보고는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비극적으로 여겨졌겠지. 그래서 울기 시작했을 거야."(108쪽) 마담의 울음에 대한 토미의 짐작과 실제 이유가 보여주는 간극이야말로 인간과 복제인간이 좌정한 다른 좌표를 시사한다. "간절하게 아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 나름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과 생활세계를 희망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개체의 영속성을 갈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마담은 "빠르게 다가오는 신세계"를 목도할 뿐이다. 이처럼 소설에서 복제인간은 인류의 생명연장을 조력하는 의료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312쪽) 기증이라는 용어에 투영된 인간 중심주의와 강제된 역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성이야말로 복제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간 첨단 과학기술의 등장에도 '감정'만큼은 인간 고유성의 산물로 인식되어 왔다.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4차 산업 이후의 사이보그학 등이 주목하고 있는 요소 역시 감정의 복제에 있다. 인간의 감정을 해독·재현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휴머노이드의 개발이나 유전공학을 활용한 생명연장과 인간복제의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아니라 대처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구·상용화되어야 한다. 즉 과학기술은 오늘의 편리보다 미래적 파급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 소설이 90년대라는 과거적 시·공간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은 포스트-휴먼을 통한 미래사회에 대한 성찰이면서 동시에 휴머니티를 구성해온 인간 문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일환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포스트-휴먼에 대한 상상이 도래할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환상적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지난 세기 인류가 구성해온 휴머니티의 조건들과 그러한 담론으로 자연스럽게 구축한 배타적인 휴머니즘 정체성의 오만과 위험성을 고발하기 위한 작가의 장치로 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최근 인본주의와 권력화된 휴머니티에 대해 반성하는 횡단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이자, 윤리·제도 등 사회질서와 체계를 해체·횡단하는 일이기도 하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역시 이러한 성찰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텍스트다. 미디어에 의해

재현되어온 포스트-휴먼은 비인간적 요소를 중심으로 시각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창조'와 '제작'에의 책임은 은폐되거나 애초부터 거세되어 왔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통해서 성찰할 수 있는 것처럼 '괴물'이든 만족할만한 이상적인 미래존재를 창조했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까지 함양되었을 때 기술의 실현 또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미래사회에 구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과학기술의 변혁, 예컨대 인간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물음이 범벅된 사이보그나 복제인간의 실현가능성만 놓고 보더라도 포스트-휴먼에 대한 탐색이 절실하다. 유기체와 기계의 결합이라는 사이보그의 기이한 요소만으로도 인간의 정체성은 위협받는다. 우리가 충분히 자각하고 있지 않을 뿐 유기체의 많은 결핍을 기계가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는 이미 테크노사이언스의 수혜자들이다. 즉 인간의 확장으로서의 도구는 보다 첨단의 테크노보그technoborg의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 더 이상 치료적 차원이 아니라, 신체 능력의 증대를 위한 자발적 선택과 비용 지불이 사이보그공학이나 생명공학의 발전이라는 이해관계와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순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에 대한 다각적 고찰과 새로운 윤리의 구성이 요청되며, 그것이 야기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문학적 고찰 또한 필요하다.

공-산을 위한 사유는 트랜스-휴머니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세계인식으로는 공존의 가능성이 요원하다. 그간 반성 없이 속도에 도취한 기술적 진보는 새로운 경각심과 성찰을 수반해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의 속도와 방향성,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보다 명료하게 결정해야 할 때다. 가속할지 제동을 걸지에 대한 전 지구적 공론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사회는 유기체와 기계 등 다양한 혼종으로 제작된 포스트-휴먼과 동물성의 혼재로 구성될 것이다. 물론 이때의 기계

는 강인공지능의 향상으로 인간적 요소가 보다 강화된 형태로 구현된 휴머노이드와 복제인간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찬가지로 동물 역시 과학기술과의 결합으로 인간적 말하기와 감정 표현 등을 통해서 보다 인간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색해야 할 공존은 '우리' 너머에 있다. 호모 사피엔스가 구축한 견고한 인본주의의 세계를 허물고, 인문학과 과학기술, 그리고 동물학의 통섭적 사유를 통해 이종의 지형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 김남주 옮김, 민음사, 2009.

2. 논문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21, 한국여성철학회, 2014, 68~94쪽.

김형주 · 이찬규, 「포스트휴머니즘의 저편」, 『철학탐구』53,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19, 51~80쪽.

김휘택, 「초인간, 포스트 휴먼의 등장과 재현」, 『문화와융합』41(2),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43~74쪽.

박선주, 「인조인간, "헐벗은 생명," 포스트/휴머니즘:메리 쉘리의 『프랑켄슈타인』과 카즈오 이시구로의 『날 보내지 말아줘』에 나타난 고아와 인간」, 『역사와문화』24, 문화사학회, 2012, 129~152쪽.

성정혜, 「생명정치를 넘어: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조에윤리학」, 『영미연구』48, 한국외대 영미연구소, 2020, 79~104쪽.

안진흥, 「『프랑켄슈타인』 : 인간과 비인간을 함께 포용하는 포스트휴먼」, 『영미어문학』134, 한국영미어문학회, 2019, 61~81쪽.

양종근, 「복제인간과 자아정체성」, 『인문연구』91,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191~222쪽.

이경수, 「인공지능 시대 시의 윤리와 시적 정의」, 『국제어문』82, 국제어문학회, 2019, 429~452쪽.
이양숙,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과학담론과 문학적 상상력」, 『도시인문학연구』11(1),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019, 83~112쪽.
조성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나는 상실과 기억과 애도로서의 스토리텔링」, 『비교문화연구』58,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20, 129~154쪽.
천현순, 「호모 데우스와 포스트휴먼 상상력」, 『브레히트와 현대연극』40, 한국브레히트학회, 2019, 235~258쪽.
함종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의사소통 교육 모색」, 『교양교육과 시민』2, 숙명여대 교양교육연구소, 2020, 131~153쪽.

3. 단행본

권복규 외,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메디치, 2015.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2020.
한소원 외, 『호모마키나』,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_____, 『정치적 감정』, 박용준 옮김, 글항아리, 2019.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김명주 옮김, 김영사, 2017.
폴 뇌플러, 『GMO사피엔스의 시대』, 김보은 옮김, 반니, 2016.
후쿠오카 마사노부, 『짚 한오라기의 혁명』, 최성현 옮김, 녹색평론사, 2011.

(**투고일**: 2020. 11. 14 **심사완료일**: 2020. 12. 18 **게재확정일**: 2020. 12. 21)

조춘희
소 속: 부산대학교 강사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전자우편: champoet@naver.com

[Abstract]

A Study on Post-Human Crossing Humanity

- Focused o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Jo, Ch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oblem of post-human transverse humanity.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loned humans appearing in Kazuo Ishiguro'novel *Never Let Me Go* on the post-human issue and the requirements of exclusive humanity. By exploring various forms of post-Human through trans-humanity, we try to think about the members of the future society. And above all, it trie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 on humanism. Chapter 2 analyzes the human desire for homo-Deus and the social space in which it is realized.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examine the problem of cloned humans and post-humans. Chapter 3 explores characters in novels that transcend the conditions of humanity.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refining of cloned humans was analyzed with soul and sensitization factors. These studies cover my problems at the global level to construct post-humani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onstitute a heterogeneous topography through sympathetic thoughts of humanities, science and technology, and zoology, harmonizing the world of humanism built by Homo sapiens.

Key words: *Never Let Me Go,* Kazuo Ishiguro, post-human, cloned-human, humanity, transverse humanities